

민주당 광주·전남 공천심사 전면중단

대리모집 의혹 선거구 조사단 추가 파견

민주당의 호남 지역 예비 후보들에 대한 면접 등 공천 심사가 전격 보류됐다. <관련기사 4면>

특히, 민주당은 광주 동구 이외에도 국민경선 선거인단 대리 등록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에 대해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해 공천 구도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전북 7개 지역구와 광주 4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 면접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심위의 내부 논의가 언론에 흘러 나간데다 3차 공천 결과와 관련,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 강철규 공심위원장이 크게 격노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백원우 공심위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29일) 전북 7개 지역구와 광주 4개 지역구에 대한 면접이 예정돼 있었지만 일정이 순연되게 됐다”

며 “강 위원장은 ‘공심위 내부 논의가 언론에 보도되고 기자간담회가 사전 충분한 설명 없이 취소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천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호남지역 공천 심사는 이르면 1일, 늦어도 2일에는 속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1일부터 광주 동구 외에 국민 경선 선거인단 대리 등록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광주·전남 선거구에도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신경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명선거대책반’을 구성해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광주·전남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구에 대해서 즉각 실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면으로 계속>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29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동부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유 청장은 지난 1월 19일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장 13명에게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게 지지 발언을 한 혐의다. 유 청장은 지난 26일 오후 전직 동장의 투신사건과 관련 광주선관위의 수사의뢰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낙하산 공천’ 남발 안된다

민주당, 광주 동구 사고 선거구 분류 전략공천

광주·전남 3~4곳 확대설 ‘참정권 박탈’ 반발

민주당이 국민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투신 자살 사건이 발생한 광주 동구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진상조사단의 결과에 따라 광주 동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며 “그동안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예비후보자들도 전략공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동구의 전략공천이 민의와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의 투신 자살 사태로 광주 정치 1번지인 동구가 속대밭이 된 상황에서 별다른 연고가 없는 외부 인사를 ‘낙하산’ 공천한다면 동구 민심은 파탄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빠 빠지게 바닥을 다져온 기존의 예비 후보들을 둘러싸고 낙하산 전략공천에 나서는 것은 ‘호남은 누구를 세워도 당선될 것’이라는 오만한 발상으로 강력한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호남지역 공천을 앞두고 흘러나오는 광주·전남 지역구 3~4곳의 ‘전략공천설’과 관련해서도 지역 민심의 반응은 차갑다.

공심위의 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는 것은 당내 계파 간의 ‘자기 사람 심기’ 등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우윤근 공심위원은 “면접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전략공천 지역이 거론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호남은 공심위에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공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 참여를 통한 공천 개혁과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전략 공천’을 남발한다면 호남 민심 이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장 1명 체포·압수 증거물 분석

검찰 동구 불법선거 의혹 수사 속도

검찰이 선관위 직원들의 단속 중 발생한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 사건과 관련 현장에 있던 통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중)는 지난 26일 오후 전직 계림1동장인 조모(65)씨와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4층 꿈나무도서관에 함께 있었던 통장 백모(57)씨를 다음날인 27일 밤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통장이 경선운동에 참여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조직의 결성 과정·규모, 특정 후보와 연관성 등을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광주선관위 등이 꿈나무도서관에서 확보한 모 예비후보의 명함, 의정보고서, 경선인단 모집 수첩, 모바일 선거인단 선정 실적표, 통장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29일 밤 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관위가 검찰에 박주선 예비후보와 유태명 동구청장이 연루됐는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두 사람에게 대한 소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광주동부경찰은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 청장은 지난 1월 19일 오후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장 13명에게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게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당시 자리에는 박 의원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유 청장을 상대로 당시 박 의원, 동장들과 자리를 함께한 배경과 지지 발언 수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봄 함께 달립니다



3·1절 정신을 기리며 남도의 봄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오늘 오전 8시30분 옛 전남도청~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관련기사 14면>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47회째를 맞는 3·1절 마라톤은 동호인과 시민들 1만 여명이 참가하면서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교통통제 양해 바랍니다

광주일보 창사 60주년을 기념해 옛 전남도청에서 폴코스 질주가 시작됩니다. 하프·10km·5km는 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스로 이용되는 일부 도로에 대한 교통 통제가 이뤄지게 됩니다. 교통 통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2~15도의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포근한 봄과 함께 하는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오늘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열립니다

5 Point Whitening

피부 속 빛의 길을 열어 5Point를 밝히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피부 속 빛의 길이 막히면 얼굴빛이 칙칙해지죠. 속부터 맑고 환한 피부를 원한다면 더욱 진화된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을 만나세요. 헤라의 바이오 기술이 빛의 길을 열어 5Point를 생생하게 밝혀줍니다. 마치 피부 속에 5개의 조명을 탁 کن 것처럼.

5 Point Whitening이란?
제대로된 화이트닝의 증거로서 이마, 양볼, 콧대, 턱 5군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얼광입니다

NEW
미백기능성
주름개선기능성
식품의약품안전청

지금 헤라 페이스북에서 당신의 빛을 찾아보세요
www.facebook.com/hera.kr

HERA

• 유행병확진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 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www.hera.co.kr